

농가에 17조원 정책자금 저리로 푼다

정부,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한도 상향 10년간 年1% 이자 농업인 대상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 3000만원

정부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17조원을 올해 푼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지원단가를 올리며 지원절차를 간소화 시킨다는 방안이다. 또한, 농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 부채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

가에 대해 연 1%대 금리를 10년간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대출한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20억원, 30억원으로 2배 상향되고 대출신청 3억원까지 농업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 축협 심사를 거쳐 지원 되도록 했다. 더불어, 시중금리와 차액을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이자(利差) 보전' 예산도 올해, 전년보다 증액된 420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농업인 대상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된다고 전했다. 특히, 토지매입, 시설설치 등 필요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경우, 토지매입 용자지원 단가를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매나 경매 물건 매입시 지원되지 않았던 토지매

입자금이 풀린다. 1년동안 소요경비 연2.5% 금리로 지원받는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비를 따로 증빙 하지 않아도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되는 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도입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 '부안 계획회관' 백년가게 선정 현판식 열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14일, 부안군 '계획회관'에 백년가게 인증 현장 현판식을 펼쳤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부안군),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또한, 현판 제막 행사 후 가게 가족들과 업체 성장스토리, 애로 건의 사항 등 나누는 현장 소통간담회도 진행됐다.

아울러, 현판식은 백년가게 선정 가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북중기청장 주재로 제막하게 된다.

한편,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오래도록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로서 확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우리금융지주 4년여 만에 재출범 14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지주 출범식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 여섯 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다섯 번째) 등 참석 내빈들이 우리금융지주 현판 점등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체제였던 2014년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매각하고 은행 체제로 바꾼 지 4년여 만에 재출범하게 됐다.

경사노위원장 찾은 홍남기 부총리 "노동계와 대화 힘써달라"

"문제 해결 위해 사회적 '빅딜' 중요... 정부도 활용"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만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문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데, 노동계와의 대화와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문 위원장에게 "노사 문제 관련해 많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니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가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 최근 여러 현안에서 경사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를 잘 진행해서 계획대로 다음달 안에 입법 조치까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앞으로 민주노총도 참여해 본격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여러 경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적어도 2월 임시국

회까지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타임테이블이 주어져 있다"며 "2차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도 노·사·정 간에 문제를 협의하는구나' 하는 희망적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노사 문제에 있어 '사회적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푸는데 있어 사회적 '빅딜(Big Deal)'과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광주형일자리"라며 "정부도 경사노위와 같은 대화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 담당 장관으로서 경영계와 노동

계를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파인텍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을 언급하며 "노동자의 요구가 타당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노동자도, 사용자도 어려워하는 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문제로 격렬히 대립했던 현대차 노사도 임금 협상에 완만히 합의하는 등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올해도 희망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문 위원장을 비롯해 우병렬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방기선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국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시민석 경사노위 운영국장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능력중심의 인사로 조직 활력화에 기여

전북농협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정현주씨 임명

지난 1월 1일자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정기인사에서 지역본부 첫 여성 단장이 임명되어 화제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 정현주 단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성과중심, 현장중심의 원칙에 따라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 선임을 중점을 두었고 유리전장을 깨고 능력중심의 인사로 조직 활력화에 기여할 인물을 발탁했다는 설

명이다. 정현주 단장은 지난 6년간 농촌지원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복지 업무와 여성단체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문화가정·농촌취약계층 등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여성 농업인 권익신장에 기여하였으며, 각종 단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전파와 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인정받아 승진하여 단장으로 임명 받았다.

정 단장은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성 마케팅으로 농·축협과 고객을 감동시키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기여할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올해 국제시장 급격한 자금 유출입 가능성 낮아

국제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2시에 서울 지방보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국제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엔 이성호 크레디타그리플 전무, 남궁원 KEB하나은행 자금시장본부장 등 PD를 비롯해 임지용 한국씨티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 수석 등 국내·외 금융기관 임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국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 시장의 안정적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정책 기조, 대내외 경제 전망 등에 따라 올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의 대외신인도가 양호한 점과 더불어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기간인 8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이번달 40bp 수준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평가했다.

50년물 발행이 올해부터 격월로 정례(필요시 3, 9월 추가 발행)화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장기물의 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정부, 설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서... 농축산물 1.4배 더 푼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잡기에 나선다. 배추·무·사과·계란 등 10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전 3주(1월14일~2월1일)간 이 같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 사과 등 과일 가격이 평년 대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폭염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탓이다. 배의 경우 이달 들어

평년대비 44%, 사과는 15% 오른 가격을 보이고 있다.

소·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닭고기 소비자가격이 5445원으로 평년(5279원) 수준을 소폭 웃돌고 있다. 임산물도 경우 밭과 대추 등이 평년 대비 강세를 띄고 있다.

대책기간 시중에 풀리는 10대 성수품의 하루 물량은 737t이다. 평소의 541t보다 1.4배 가량 많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